유토피아를 거부하며: 헤테로토피아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달콤한 정신적 환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린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인간은 '이상'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된다. 이 힘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메이는 일말의 의지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삶의 수준에서나 사회적 수준에서 동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달콤한 정신적 환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린다.

미셸 푸코(1926)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단호히 부정하고 존재적 대안공간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주창했다. 이것은 기존의 권력과 시스템, 질서에서 비롯된 엔트로피들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개념이다. 혼란의 시대, 우리의 자세는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진 유토피아가 아닌, 철저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차원의 현실(공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현실은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분히 이질적인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

나는 말하리라,
열정이 사라졌을 때
삶은 어둠에 불과하다고
나는 말하리라,
깨달음이 없는 한
모든 욕망은 맹목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말하리라,
노동이 없는 깨달음은 헛된 것이며
사랑이 없는 노동 역시 헛된 것이라고.

경이에 찬 눈빛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기적들을 지켜보면
고통도 기쁨처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들판 위로 지나가는 계절에 순응했듯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계절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_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CEO James Roh(노상충)